



빈 전투



노윤래
칼럼니스트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 본부장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사

종교전쟁(Wars of Religion)이란 유럽에서 종교문제와 관련되어 일어난 일련의 전쟁을 말한다. 유럽 역사상 종교전쟁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후반에 걸친 종교개혁을 계기로 신교(프로테스탄트)와 구교(가톨릭)의 대립으로 국제적 규모로 전개된 전쟁을 가리키지만 13세기에서 16세기 초까지 이단으로 몰려 탄압되었던 종파들과 벌어진 국지전도 종교전쟁에 포함된다. 대표적 종교전쟁으로 십자군 전쟁(Crusades), 후스(Huss)전쟁, 위그노 전쟁(Huguenots Wars), 기사전쟁, 슈말칼덴 전쟁(Schmalkaldisher Krieg), 네덜란드 독립전쟁, 30년 전쟁, 영국과 에스파냐의 전쟁 등이 있다. 종교적 대립이 반드시 전쟁의 원인은 아니며 종교적 대립을 정치적, 사회적 문제와 결합하거나 복잡한 국제관계가 잠재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

지 유럽의 기독교도들이 성지 팔레스티나와 성도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8회에 걸쳐 감행한 대원정을 말한다. 전쟁의 시초는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제공했는데, 그는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반드시 성지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나 서유럽의 도시들이 십자군 전쟁에 힘입어 동서 간의 교통이 활발해지고 상업이 활기를 띠는 등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30년 전쟁은 1618~1648년 사이에 주로 독일을 무대로 기독교 신파와 구파 간에 벌어진 종교전쟁을 말한다. 전쟁 전반기에는 종교적 색채가 짙었으나 후반에는 정치적 문제로 전쟁이 변질되었다. 이 전쟁은 십자군 전쟁이나 백년전쟁보다는 짧았지만 쉬지 않고 전투가 계속되었으며 심지어 흑한에도 전투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동원된 병력과 화력의 규모에서도 종전의 전쟁을 압도했다. 30년 전쟁은 최대의 종교전쟁이었고 최초의 근대적 영토전쟁이기도 했다. 한편 유럽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치러진 참혹한 전쟁사로 기록된다. 이 전쟁이 끝날 무렵 체결된 베스트팔렌조약에 따라 기독교는 가톨릭, 루터파, 칼뱅파가 각각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1683년 9월 11~12일 이틀간 벌어진 빈 전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전쟁으로 평가된다. 역사가들은 이 전쟁으로 300년 이어진 신성로마제국과 오스만제국의 전쟁사에서 빈 전투의 승리로 이슬람 세력의 서진 정책이 좌절되었으며 유럽은 기독교 문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이 된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빈 전투는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대전환의 혁명으로 볼 수 있다. 이 빈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당시의 정치, 사회 종교적 상황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1516년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셀림은 이집트의 마멜루크 왕조 군대를 팔레스타인에서 격파하고 카이로를 점령해 이집트를 멸망시켰다. 또 셀림은 헝가리도 정복해 투르크는 명실공히 이슬람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집트는 투르크에 군사 물자를 공급하는 처지로 전략했다. 헝가리는 그 후 150년간 투르크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다만 17세기 말까지 투르크와 빈 사이에는 평화가 존속되었는데, 이는 오스트

리아가 30년 전쟁의 후유증으로 투르크는 크레타섬 공략으로 두 나라가 모두 국력을 소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투르크가 국내 정비에 성공하고 재상 무스타파가 집권하면서 두 국가 사이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무스타파는 투르크가 유럽을 이슬람화하는 전위대라는 사명감을 자각한 것이다. 그는 오스트리아를 정복한 후에 폴란드, 독일 등을 차례로 정복해 유럽의 이슬람화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국내에서 병력을 확충하기 시작했다. 이는 동서양이 충돌하는 대 폭풍의 전주곡이었고 빈은 다시 전쟁의 화마에 휩쓸리게 되었다.

오스만제국의 군대는 무스타파가 15~30만의 원정군을 이끌고 아드리아노플을 출발해 1683년 7월 빈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인 전투는 9월 11~12일에 일어났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폴란드와 연합해 폴란드 국왕인 양 3세가 직접 지휘했다. 이 전투에서 연합군은 전략적으로 우세한 빈 교외의 요충지인 칼헨부르크 언덕을 전장으로 택해 치열한 전투 끝에 투르크 군을 격파하고 승리를 이끌었다. 이 전투는 신성로마제국과 오스트리아-폴란드 연방이 오스만제국에 맞서 싸워 승리한 것으로, 그 결과 이슬람 세력의 유럽 진출을 저지해 기독교 문명을 지키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전환점이 된 위대한 종교전쟁이었다.

오늘날의 중동전쟁, 인도-파키스탄 전쟁도 종교전쟁이라고 하지만,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 대립이 반드시 전쟁의 원인만은 아니

며 거기에는 종교적 대립을 정치적, 사회적 문제 또는 영토를 둘러싼 갈등이 쌓인 국제관계가 잠재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1세기가 시작되는 첫해인 2001년에 국제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이 후원한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 미국 자본주의의 중심인 국제무역센터(쌍둥이 빌딩)와 국가안보의 심장인 펜타곤을 자살 폭격해 3,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쌍둥이 빌딩과 펜타곤을 붕괴하거나 파손시키는 참사를 일으켜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빈 라덴이 9월 11일에 이런 엄청난 공격을 미국 본토에 가한 것은 1683년 9월 11일의 빈 전투 패전으로 이슬람 세계의 원대한 꿈이 산산조각이 난 것에 대한 보복적 반격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고대와 중세는 물론 현대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 간의 전쟁이 상대국에 대한 단순한 보복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역사적 사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KMIF*